

Date: 22 Nisan 5786 (April 9, 2026)

Torah Portion: Sh'mini

Topic: 밤을 지키는 세 파수, 제 2 부

앞서 언급했듯이, 밤은 유배의 어둠, 즉 여호와 엘로힘의 얼굴이 숨겨진 상태인 헤스테르파님(הסתתר פנים)을 의미합니다. 현인들은 이 밤이 세 개의 '파수하는(watches)' 시간대로 나뉘며, 각 시간대는 독특한 소리로 특정되어 갈루트(גלות, 유배)의 서로 다른 차원을 드러낸다고 가르칩니다.

밤의 첫 번째 파수에는 하몰(חומר 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노예의 종속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지워진 무거운 멍에를 상징합니다. 나귀를 뜻하는 이브리 성언인 '하모르'는 물질성을 뜻하는 호메르(חומר)와 어원이 같으며, 이는 오직 사람을 “짐이나, 효용성”으로 만 계산된 존재 가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미쯔라임(이집트; 억압)이라는 이방 영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세금을 내고 착취당하며 기력을 소진하는 '짐 싣는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열방에 임하는 권능(엘로힘)으로 몰고 가는 제국들은 부와 노동력, 존엄성을 갈취하며 강제 노동인 마스(mas, מס)와 가혹한 법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배는 주로 물리적인 고통입니다. 즉, 하구프(ha.guf, הגוף, 몸)가 억압받고 하아담(ha.a.dam, האדם, 인간)은 생존의 문제로 전락합니다. 선지자들의 애가에 표현된 것처럼 "내 목에 멍에를 메우셨도다"(애가 1:14 참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따라서 나귀의 울음소리는 강요된 종살이 아래 굶어버린 백성들의 외침인 콜 셸 올(קול של עול, '멍에의 목소리')을 반영합니다.

밤의 두 번째 파수에는 개들(כלבים)의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유배지의 더 깊고 무시무시한 차원에 해당합니다. 게마라(Bava Kamma 60b)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개들이 짖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성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고통은 경제적 압박을 넘어 실존적 위협으로 심화됩니다. 이 단계는 박해와 순교, 종교적 강제력의 시대를 반영하며, 이스라엘이 단순히 물질적 짐을 지는 것을 넘어 영혼의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때를 나타냅니다.

마하랄(랍비 예후다 로우)은 그리스 유배와 에돔(로마) 유배를 대조하며 이 차이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토라 말씀 봉독과 공부, 안식일등 그 언약 말씀의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정한 이방 법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영혼을 여호와로부터 단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법령은 이데올로기(정신; 열)에 관한 것이었으며, 처형의 벌은 남은 이스라엘로 부터 그들과의 동화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반면 에돔의 적대감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에돔의 목적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법령 자체가 종종 파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불복종을 유도하는 구실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에돔 치하에서 박해는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하구프(ha.guf, 그 몸)뿐만 아니라 네웨쉬도 함께(감 하나푸쉬, גם הנפש, 영혼 또한) 박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열, 그 정체성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포그롬(학살), 추방, 화형의 역사 속에서 메시루트 네웨쉬(מסירות נפש, 자기희생)를 통해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했던 순교자들의 순간들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밤에 울려 퍼지는 필멸의 외침인 콜 셸 사카나(קול של סכנה, '위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밤의 "마지막 파수의 목소리"에서 게마라(Gemara)는 극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젓먹이가 젓을 빨고, 아내가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파괴"에서부터 다시 살아 오르는 "영속성"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권능자시여, 당신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이사야 26:13). 남편이 노하여 아내를 멀리 내보내듯, 이스라엘의 네웨쉬(영혼)도 스스로 선택한 엘로힘(권능)을 우상하며 자폭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유배지로 쫓겨나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추방되었습니다. 제 1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됨으로부터 시작해, 스페인 추방령에 이르기까지, 그 유배는 종종 강제적인 격리와 이곳 저곳으로 쫓겨나는 이별의 형태였습니다.

동시에 젓먹이 아기의 이미지는 또 다른 차원, 즉 장기화된 유배 기간 동안 토라 지식이 점진적으로 약화됨을 가리킵니다. 수 세기 동안의 격동(이주, 박해, 불안정)은 지속적인 토라의 가르침과 후대에 전수하는 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한때는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토라 배움의 중심지에 뿌리를 두었던 이스라엘 중의 현인들은 유배지에서 그 이전 세대를 의존하는 어린 아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요벳 (יונק) 젓먹이 아이)이 어머니로부터 온전히 영양분을 공급받듯, 후대의 탈미데이 하카밈(תלמידי חכמים, 현인들의 제자들)은 과거의 현인들에게 부여 주셨던 여호와 토라 말씀의 지식으로부터 길어 올린 가르침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전만큼 광범위한 새로운 통찰(חשיפה 히두쉬)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번째의 파수의 목소리"는 단순히 쇠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존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젓을 먹는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대화하는 부부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유배 중에도 토라의 빛은 꺼지지 않으며, 기존 세대에서 후 세대로 전수되고 보존되며 조용히 읊조려 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하고 취약하지만, 사생결단으로 끈질기게 이어지는 콜 셸 하임(קול של חיים, 생명의 목소리)입니다.

이처럼 밤의 세 파수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영혼의 유배지에서 겪는 점진적인 과정을 묘사합니다:

종살이 (아브둘, עבדות)

위험과 죽음 (사카나 우마벨, סכנה ומוות)

마지막으로 추방과 쇠락—그럼에도 끊기지 않고 깨어 나오는 그 네웨쉬(영혼)의 지속성.

종살이, 죽음, 강제적 개종(기독교나 이슬람), 추방, 그리고 토라 지식의 침식—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영혼이 유배지의 밤 깊은 곳으로 던져졌을 때 견뎌온 시련들입니다. 나귀의 울음과 개의 짖는 소리 앞에 무력해 보였으나, 이스라엘은 케세르(קשר, 연결)와 토라(תורה, 가르침), 그리고 켈렘 엘로힘(בצלם אלוהים, 엘로힘의 형상)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에 힘입어, 마지막 파수까지 버텨냅니다.

그리고 현인 기록의 가르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어두운 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메이르 라아레츠 벨라다림 알레이하 베라카뎀" (המאיר לארץ ולדרים עליה ברחמים)

"자비로써 땅과 그 거주민들을 비추시는 분이시여!"

이는 이스라엘 영혼이 아침에 일어나 올려드리도록 전승받은 축복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유배의 어두운 밤은 결국 새벽

즉, 오르 하다쉬 알 짜윤(אור חדש על ציון, '시온 위의 새로운 빛')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나는 의로움 가운데 [여호와] 당신의 얼굴을 뵈오리니 아침에 깼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테힐림(시.)17:15

*이스라엘(יִשְׂרָאֵל)= 이스라(יִשְׂרָאֵל)+엘(אל)= 여호와의 직접적인 권능= 어두움의 엘로힘(권능)을 싸워서 이긴자=
똑바름/올바름/정도/옛 길 선한 길안에서의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권능!

shalom